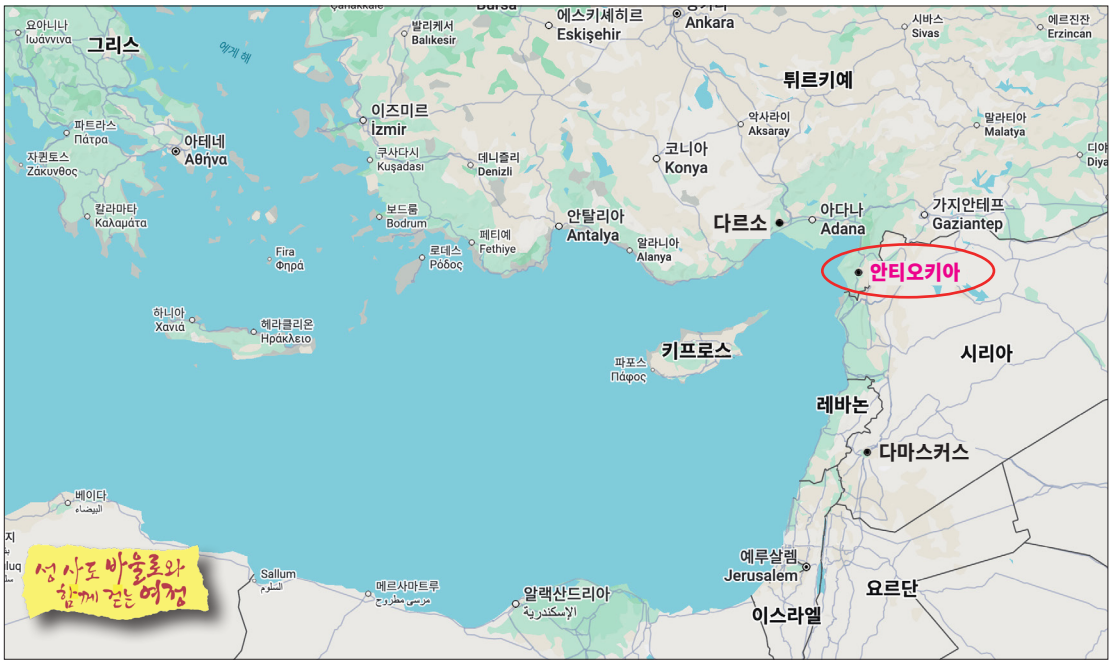
정교회주보

제2564호
2026년 2월 15일

한국 정교회 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신자들이 처음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곳, 이방 선교가 시작된 보편 교회의 중심지 안티오키아

심판 주일 (금육 주일)

성 오네시모스 사도
성 에브세비오스 수도자
(제3조 • 조과 복음 3)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 제3조 부활 찬양송 …… 82
- 사도 찬양송 …… 84
- 성당 찬양송
- 금육 주일 시기송 …… 220
- 사도경 : 고린토 전 8,8~9,2 (봉)432
- 복음경 : 마태오 25,31~46 …· 136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7회] 안티오키아 교회

스테파노스의 순교 후, 휘몰아친 박해로 흩어진 신자들은 페니키아와 키프로스를 거쳐 시리아의 안티오키아(오늘날의 튀르키예 안타키아)에 이르렀다. 그들은 처음에는 유다인에게만, 그리고 점차 이방인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왔다.(사도행전 11,19-21 참조)

예루살렘 교회는 바르나바를 파견하였다. 그는 안티오키아에 임한 하느님의 은총을 보고 기뻐하며, 모두가 굳건히 주님께 머무르도록 격려하였다. 이어 사울을 불러 함께 활동하며, 새 신자들을 가르치고 공동체를 세워 갔다. 이곳에서 유다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보편적 교회의 모습이 뚜렷이 드러났다. "이때부터 안티오키아에 있는 신도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사도행전 11,26)

안티오키아 교회는 예배와 금식과 기도가 살아 있는 역동적인 공동체였다. 어느 날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할 때, "성령께서 '바르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로 정해 놓은 일이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사도행전 13,2) 교회는 기도와 금식 후에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파송하였다. 이렇게 안티오키아 교회는 박해를 피해 모여든 이들의 피난처를 넘어, 바르나바와 바울의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영적 발판이자, 땅끝까지 이어지는 이방 선교의 중요한 중심지가 되었다.

심판의 기준 “사랑”

한의종 알렉산드로스 신부

사랑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시고, 또 그 사랑을 우리가 배워서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여기서 완전하다는 의미는 어떠한 이익이나 대가, 요구도 없이 오직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당신의 나라인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희생적인 영적 사랑을 가리킵니다.

사랑을 베풀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사랑의 실천을 보여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일반적인 사랑은 그 근본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을 도와주고 헌신하며 목숨까지도 바치는 사랑 역시 숭고하고 거룩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사랑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랑은 극히 인간적인 사랑으로, 부모가 생존해 있을 때만 받을 수 있고, 결국엔 사라지는 제한적인 사랑입니다. 모든 인간적인 사랑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줍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도록 당신의 사랑으로 지켜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며 행복하게 살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진실하고 완전한 사랑을 얻기 위해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며,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오직 그분의 사랑만을 우리의 행복이자 가치 있는 삶의 기준으로 삼아 살아갑니다. 사랑은 주고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을 느끼면, 그러한 모습을 보시는 주님도 행복해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행복해하는 사람들은 그 사랑을 이웃에게도 전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실천을 통해 전해질 때 비로소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려면, 먼저 자신을 정확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자신 안에 교만은 없는지, 시기와 질투, 분노, 나태와 탐욕, 식탐과 정욕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러한 죄악에 빠지지 않으려면 부단한 영적 투쟁이 필요합니다.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겸손입니다. 겸손은 모든 일을 이해하려 하고 자신을 낮추려 하며,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게 해줍니다.

주님께서는 이 겸손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겸손의 미덕을 얻으려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분을 따라 살아갑니다. 영적으로 목이 말라 생명의 물을 마시고자 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따릅니다.

주님께서는 겸손을 통하여 사탄의 온갖 유혹을 이겨 내시고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이라 자처하는 사람들은 겸손하지 못합니다. 세상에서는 존경과 높임을 받을지라도 참된 영적인 사람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며 겸손히 고개 숙이는 자만이 주님의 영적 사랑을 느끼고, 그분을 사랑하는 열정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게 됩니다.

세상에서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은, 가난하고 굶주리고 병들고 고통받는 나약한 사람들을 보살펴주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오른편에 앉아 주님의 나라를 차지하고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재물과 권세가 있다고 과시하며, 없는 사람 무시하고 차별하는 사람들은 결코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없을뿐더러 주님의 사랑을 욕되게 함으로써 주님의 왼편에 서서 악마와 그의 졸개들과 함께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리하여 그들은 영원히 벌받는 곳으로 쫓겨나게 될 것이며,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마태오 25,46)

마음 속에 담아야 할 가르침

아타나시아 봉사자 엮음

최근 있었던 실화

얼마 전의 일입니다. 길에서 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주교님, 그저께 성당에서 하신 설교 말씀은 정말로 훌륭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말한 것 가운데 어떤 부분이 그토록 훌륭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서 그분께 물어보았습니다.

"어떤 것이 그렇던가요?"

그러자 그분이 대답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지극히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기에, 우리가 아무리 낮은 곳으로 떨어진다 해도 그분은 항상 우리 아래보다 더 계시고, 그래서 항상 우리를 들어올려 주신다고 하신 말씀이요! 대주교님, 그 말씀이 저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과 희망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 마음을 성령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는 하느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어준 여러분 모두에게 도리어 제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대해 하느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예외 없는 사랑

영국 에섹스에 수도원을 세운 소프로니 성인(1896-1993)에 따르면, 사랑이 가치를 지니려면 어떤 예외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져야 합니다. 사람을 가려 선택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진실로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그런 사람은 그저 인간적인 애착이나 연민만을 지니고 있는 것일 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의미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아토스 성산의 파이시오스 성인(1924-1994)은 "사랑이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는 것이며,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까지도 사랑하고, 내 마음에 상처를 준 이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입니다. 그 밖의 모든 것은 사랑의 그림자이거나,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그리스 시아티스타의 바울로 대주교(1947-2019)

주간 예배 안내

* 2월 16일(월)
성 니콜라이 카삿킨 일본 대주교
* 2월 17일(화)
한국 첫 성찬예배 기념일
성 테오도로스 순교자
오전 9시 : 조과 및 성찬예배
(각 성당 예배는 문의 바랍니다.)

▦ 이번 주간 금식 안내

이번 주간에는 육류를 금하고, 생선, 달걀 및 유제품은 허용됩니다. 다만, 올해는 월-수요일이 설날 연휴인 관계로, 이 3일간은 금식이 해제됩니다. 축일 달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회의 만과 안내

사순절 전 주일인 다음 주일(2월 22일)에는 오후에 참회의 만과를 드립니다. 사랑과 용서로 사순절을 시작할 수 있도록 모두 참례합시다. 자세한 시간은 각 성당에 문의 바랍니다.

알 림

▦ 설날 예배 안내

오는 화요일(17일)은 설 명절로, 교회에서는 조상들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들을 기리는 추도식이 거행됩니다.

한편, 매년 2월 17일은 '한국 첫 성찬예배 기념일'로 성찬예배가 거행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 설날에는 모든 성당에서 성찬예배와 추도식이 함께 거행됩니다. 예배 시간은 각 지역 성당에 문의 바라며, 꼴리바를 준비하여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성당에서는 9시 30분부터 성찬예배와 추도식이 거행됩니다.)

▦ 울산 성당 암브로시오스 대주교 사목 방문

암브로시오스 대주교께서 지난 주말(7-8일) 울산 성 디오니시오스 성당을 사목 방문하셨습니다. 토요일 저녁에는 대만과 설교, 신자들과의 만남이 있었으며, 주일 아침에는 조과와 성찬예배, 설교, 사랑의 오찬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주일 설교에서는 대사순절과 탕자 주일의 의미에 대해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 아토스 성산 순례

지난 주일(8일) 밤, 임종훈 안토니오스 신부와 청년 4명이 아토스 성산의 여러 수도원으로 영적 순례를 떠났습니다. 순례단이 모든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건강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영성의 샘터

성인이 슬퍼한 이유

언젠가 마카리오스 성인이 말했다.

"내가 어렸을 때의 일이야. 나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소를 돌보는 목동 일을 했지.

어느 날 아이들이 무화과를 서리하러 갈 때 나도 데리고 갔어. 그런데 소들에게 돌아오는 길에, 바구니에 담았던 무화과 열매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어.

나는 그것을 집어서 먹었지. 백발이 성성해진 지금도 그때 저지른 그 잘못이 마음에 걸려 슬픔을 감출 수가 없다네."